

산문 들어서면 등불처럼 환한 백련이 한가득



(102) 창원 불모산 성주사

낙남정맥은 지리산 영신봉에서 낙동강 남쪽을 가로질러 김해평야에 이르는 산줄기이다. 이 산줄기를 등에 지고 사천-진주-마산-창원-진해-김해 등이 남해안에 접해 있다. 인구 40-50만을 자랑하는 도시들이 떠를 이루고 있는데 이 지역엔 이렇다 할 명산대찰이 없다. 명산대찰은 수려한 자연풍광과 함께 세월의 이끼가 앉은 문화유산이 있어야 한다. 그나마 불모산은 낙남정맥 중에서 오지랖이 가장 넓고, 성주사는 이 지역에서 사세가 가장 큰 절로 꼽힌다.

낙남정맥의 산들은 모두가 800m 미만의 산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해발 802m 창원 불모산이 가장 높다. 불모산은 낙남정맥이 환한 여항산에서 김해 분성산으로 달리던 도중 창원과 김해 경계에서 남진해 내려간 지붕 가운데 하나이다.

성주사의 창건 인연은 멀리 가야국 초기까지 닿지만, 신빙성이 좀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사적기>에 보이는 신라 하대 무염국사(당해 화상) 창건설이 상대적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염은 충남 보령에 성주산문을 연 바로 그 인물이다.

성주사는 인진왜란 이후 전소된 절을 중건할 때 꿈이 나타나서 목재를 운반해주었다고 '곰절'이라 부르고 있다. 하지만 무염국사가 세운 보령 성주사 앞 개울이 곧내(熊川)이고, 인접한 곳에 웅천읍이 있는 것을 보면 곰과 성주사의 인연은 훨씬 더 올라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설이 만들어졌다는 조선 중기 무렵, 곰이 불모산에 서식했을 가능성은 생태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주차장에 내리면 도로 옆으로 철망에 둘러쳐진 계곡이 울창한 숲속에 감추어져 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창원 시민들이 더위를 피해 찾아들곤 했던 곳. 지금은 상수원지역으로 지정하여 출입금지 철망을 성주사 위쪽까지 쳐놓고 출입을 막고 있다.

산문을 들어서면 왼쪽 백련지에 백련이 그득하다. 연꽃은 인도와 이집트를 비롯해 아시아 남부 아열대 지방이 원산지이다. 연꽃은 인도에서 불교와 함께 중국으로 전수되었고, 삼국시대에 우리 유학승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들여온 것으로 전한다. 연꽃은 색깔로는 백련과 홍련으로 구분된다.

근래 절집에 외래종 연꽃까지 무분별하게 들어와 사찰에 번지고 있다. 외래종 연꽃은 대개 색깔들이 혼란스럽고 자극적이며, 모양새도 가지각색이다. 상대적으로 우리 연꽃의 이미지에 흠집을 주고 있다.

성주사 주변의 여름 곤충은 잠자리, 매미, 나비 등이 주류를 이룬다. 백련지 주변에 잠자리와 소금쟁이 등 수변곤충들이 눈에 많이 띈다. 여름날 성주사 주변에 보이는 잠자리로는 큰뿔잠자리, 노랑허리잠자리, 고추잠자리, 깃동잠자리, 물잠자리, 아시아실잠자리 등이 보인다. 파리와매와 알락하늘소도 성주사 경내에서 관찰된 것들이다.

파리매는 육식을 하는 파리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날파리를 비롯한 작은 곤충에서부터 몸집이 큰 곤충까지 사냥한다. 성주사 계곡에는 버드나무가 많아서 알락하늘소가



성주사 연꽃.



고추나물.



늑대거미.



자귀나무꽃.

자주 관찰된다. 알락하늘소는 몸에 윤기가 나는 검은 색이며, 노란 점들이 등쪽에 흩어져 있다.

대웅전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 1990년에 조성했다는 새 석탑이 우뚝하다. 주위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서 꿩다놓은 보릿자루 같지만, 지세의 허약을 보강하기 위한 비보탑으로 보인다.

계단을 올라서면 돼지 석상 한 쌍이 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성주사 앞산이 풍수적으로 뱀의 형상이기 때문에 상극(相棼)인 돼지상을 세웠다고 한다. 이 전설 속에는 사찰의 화재를 막는 벽사론이 깔려 있다. 뱀은 불[火]을 상징하고, 돼지는 물[水]을 상징하

기 때문에 모여들어 미동도 없이 오수를 즐기고 있다. 성주사 주변에서 관찰된 나비들로는 긴꼬리제비나비, 산제비나비 등이 있다.

경내에는 연못이 많다. 아래쪽에 있는 백련지를 비롯해 분수가 있는 연못과 지장전 옆에 있는 방지(方池) 등 모두 다섯 곳에 연못이 있다. 연못을 많이 둔 것은 효율적인 방화를 위해서일 것이다.

연못에서 관찰된 늑대거미는 거미줄을 치지 않는 배회성거미이다. 죽은 듯이 있다가 먹잇감이 나타나면 갑자기 습격하는 늑대의 습성을 닮아서 늑대거미라고 한다. 그러다가 큰 적을 만나 위협을 느끼면 물

장된 길이 가로질러 있어서 성주사와는 별개의 건물처럼 느껴진다.

정와 앞 계곡 위에 무지개다리가 걸려 있으나, 상수원지역이라 철책으로 통행을 막고 있다. 계곡은 불모산 산세에 비해 규모도 작고 수량도 적은 편이다. 서식하는 어류도 버들치 한 종류에 불과하다. 계곡엔 달뿌리풀이 속대머리처럼 군락을 이루며 덩실뚱실하게 덮여져 있다.

경내에 조경으로 식재된 초본들은 원추리, 참나리, 맥문동, 부처꽃, 붓꽃, 꽃창포 등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석죽에는 사철재송화가 부처처럼 화려한 자태를 보여주고 있다.

일명 송엽국이라고도 하는 사철재송화는 남프리카를 원산지로 하는 귀화원예식물이다. 이름에서 보듯이 봄부터 여름까지 연이어 핀다. 절에서 조경용으로 많이 심고 있지만, 산중사찰에서 외래종 화초를 심는 것은 권장할 바가 못된다.

예전에는 등산객들이 성주사 경내를 통과하여 불모산을 오르곤 했으나, 지금은 철문과 철망을 쳐서 등산로를 폐쇄한 지가 여러 해 된다. 거기다가 계곡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까지 제한하다 보니 불모산 서사면의 자연생태가 크게 호전되었다.

출입통제 된 불모산 서사면의 초본으로는 고추나물, 여로, 머느리베꽃, 붉은토끼풀, 슬패랭이꽃, 여로, 오이풀, 타래나초, 하늘말나리, 가는장구채, 노루오줌, 닭의장풀, 맨무 등이 꽃을 피웠다.

고추나물은 우리나라 원산으로, 주로 남부지방에 핀다. 50cm 정도의 줄기에 잎자루 없는 잎이 마주난다. 노란 꽃이 피는데, 덩일 사그라진다. 가을에 열매가 스스로 터져서 종자를 퍼뜨린다.

불모산 서사면의 숲은 참나무류와 소나무가 중심이 된 혼효림이다. 남방계 목본으로는 예덕나무, 대팻집나무, 합다리나무, 사스레피나무, 소사나무, 노각나무, 비록나무, 사람나무 등이 분포하고 있다.

외래종 연꽃·송엽국은 사찰 조경용으로 부적절 등산로 폐쇄·계곡 입장 제한으로 자연생태 호전

기 때문이다. 경내에 바다 속에 산다는 해태상을 세운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성주사 가람배치는 전체적으로 통일성과 연계성이 없어서 저마다 꿩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있다. 가람배치의 중심점이 되어야 할 대웅전도 제 자리가 아닌 듯하고, 대웅전 중건 후에 전각들을 생각 없이 임의로 앉히다보니 전체 배치가 기형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후대에 지은 대형 건물들이 모두 시멘트 건물이다 보니 전각의 전통성마저 무시되어 버렸다.

대웅전 옆 영산전 안에는 탐스런 수박을 들고 있는 동자상이 있다. 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수박은 중동에서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에 전해졌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때 몽골로부터 전해졌다. <회심곡>에 '모래밭에 수박 굶듯 둥글둥글 자라거라'라는 구절이 나온다.

날씨가 무더워져서인지, 영산전 뒷그늘에 먹그늘나

위를 뛰기도 한다. 암컷은 공처럼 생긴 알집을 풍지에 달고 다닌다.

지장전 뒷숲 가장자리 습지에 무당개구리 몇 마리가 물속에서 먹을 잡고 있다. 성주사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양서류로는 청개구리, 참개구리, 산개구리 정도이다. 파충류의 경우도, 뱀산이라는 별명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종류도 적고, 개체수도 많지 않다. 모니터링 기간 중에 유혈목이와 쇠살모사만 각각 1개체 관찰되었다.

지장전 소대에서 검은 연기가 팔도 없이 풀풀 나고 있다. 땅자의 화학섬유 옷이나 플라스틱 액자나 신발 등은 불에 타면서 다이옥신이라는 유해물질들을 만들어 낸다. 다이옥신은 공기와 물과 흙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다. 이제는 환경문제를 고려할 때이다.

정와(靜窩)와 매점은 입구 쪽 독립된 공간에 자리하고 있다. 경내에서 외진 곳에 떨어져 있는 데다 포

고성능 CCTV 카메라를 원하시는 곳에 저렴한 가격으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옥션대행사 **메컬스님**
현대불교 중흥(대전충남충북)지사장

고장 발생이 거의 없는 **300GB** 대용량 영상기록

DVR 모니터 250만원
카메라 4대 (설치비용 포함)

작동점검, 케이블 보수
A/S 및 정기점검 서비스

전화문의
043-732-5560
010-9422-8453

입력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설치장소를
답사하고 설계를 마친후
설치작업이 시작됩니다.
인도시스템

성단 카메라 시스템으로 사찰재산 안전하게 !!!

당신의 쉬고 있는 손 10억파리란 사실을 아십니까?

제4기 카이로 프락터 양성

교과목 • 골격학, 근육학, 척추 및 골반 선추 교정, **성장 클리닉**, 31세의 중추신경계 압박으로 인한 근본적 질환 퇴치, 척추질환, 알레르기, 빈혈, 천식, 기관지, 변비, 어지러움증, 정서불안, 허약체질,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갑상선 부작용 등등

대상 • 종교인, 의료기관 근무자, 스포츠 맞사지사, 피부 미용사, 물리치료사, 체육관련 종사자, 봉사 활동자,

자격 • 초보자 및 실직·정년 퇴직자

기간 • 2급과정 (1개월)
미국 팔머대학 교재직강, 2년 전문대 교육 과정을 54 시간 집약완성

장소 • 지하철 1호선 구일역에서 도보로 5분, SK주유소 뒤, 기숙사 이용 무료

입학일시 2008년 8월 16일 오후 1시 (공개강의)

원장 **우애안 스님**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교육을 위한 맞춤 교육
최면으로 전생, 현생, 미래생 탐색 · 니를 찾는다

전생·빙의·자기 최면·치료 최면

전생 · 빙의

• 최면의 본질적이고 체계적인 최면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본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개강일 2008년 8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공개강의)
교육기간 주2회(총8회) 1개월 고급속성 과정
모집인원 선착순 10명
교육비용 50만원
교육대상 스님, 성직자, 의사, 한의사, 대체 의학인, 체육지도자, 최면 관심자, 일반인

교육내용 자기최면/타인최면/기억력, 집중력 증강/우울증 해소/대인공포/성격개선/스트레스/수면장애/빙의/전생/금연/금주

◆특기 사항
1. 상상할 수 없는 최선의 교육 경비
2. 개인별 심층교육, 이론을 토대로 실기 위주의 교육
3.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책임교육, 평생교육
4. 지방 교육생을 위한 기숙사 무료이용

습한 해동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서울·구로구 구로1동 685-201 천인빌딩 5F
본원 교학과 Tel : 02-853-6010~1